

DAY 21-35 · 3부 뭘 할 수 있나

3부 총정리 — 뭘 할 수 있나

글 줄이기부터 일 맡기기까지 · 설명 한 겹 더 · DAY 21-35

시험 없음 — 읽고 넘어가는 복습 자료

요약은 버릴 것을 고르는 일

1 요약은 글을 앞에서부터 잘라 내는 게 아니야.

2 AI는 글 전체를 먼저 훑고, 문장마다 **이게 얼마나 중요한가**를 따져.

3 그리고 점수 높은 것만 골라 자기 말로 다시 써.

원문에 없던 말이 끼어드는 자리

- 1 길이와 읽는 사람을 알려 주지 않으면 버릴 기준을 AI가 알아서 정해 버려.
- 2 마지막 칸에서 자기 말로 바꿔 쓰기 때문에 **원문에 없던 표현**이 섞일 수 있어.
- 3 그래서 받은 요약은 원문과 한 번은 맞춰 봐야 해.

번역은 낱말이 아니라 뜻을 옮긴다

- 1 번역은 단어를 하나씩 맞바꾸는 일이 아니야.
- 2 문장 전체의 뜻을 먼저 잡고, 그 뜻을 **다른 말로 다시 짓는** 일이거든.
- 3 그래서 '고양이와 개가 내린다' 같은 직역은 뜻이 통하지 않아.

관용구와 빠진 주어

- 1 관용구는 낱말의 합이 아니라 덩어리 하나가 뜻을 가져.
- 2 우리말은 주어를 자주 생략하니까 **문장 전체가 무슨 상황인지** 봐야 채울 수 있어.
- 3 2016년에 구글이 이 방식을 실제 번역에 처음 넣었고, 어색한 직역이 확 줄었어.

말길 조각과 내가 할 조각

1 AI는 글을 대신 써 주는 기계가 아니라, 내가 쓴 글을 굴러 보게 해 주는 도구야.

2 내 생각·내 경험·사실 확인은 **내가** 하고, 다듬기와 줄이기는 맡겨도 돼.

3 AI가 쓴 문장도 네 이름을 달고 나가니까.

늘어놓기는 말기고 고르기는 내가

- 1 제목 후보를 스무 개 받는 일은 맡겨도 되는데, 고르는 순간 그 제목은 네 판단이 돼.
- 2 독후감의 **내 생각** 칸은 너만 가진 자료야 — 맡기면 책 소개가 되고 읽는 사람도 금방 알아챈다.
- 3 발표에 넣을 숫자는 그 숫자를 처음 낸 곳을 찾아 확인하고 출처를 적어.

코드를 받는 건 시작일 뿐

1 말로 설명하면 코드가 나오는 건 맞아.

2 그런데 코딩의 진짜 절반은 코드가 나온 다음에 있어.

3 실행하고, 오류를 읽고, 고치는 일이 거기 들어 있거든.

빨간 오류는 혼나는 게 아니라 쪽지

- 1 오류 메시지에는 몇 번째 줄에서 왜 멈췄는지가 적혀 있어.
- 2 줄여서 전하지 말고 **통째로 보여 주는** 게 제일 빠른 수리법이야.
- 3 큰 걸 만들 땐 토막마다 실행해 확인하면 고장 난 곳이 바로 보여.

잡티를 걷어 내며 그린다

1 그림 AI는 어디선가 그림을 찾아오는 게 아니야.

2 점 투성이 화면에서 잡티를 조금씩 걷어 내며 그려 나가.

3 네 설명은 그 걷어 내는 방향을 정하는 손잡이야.

말하지 않은 건 AI가 정한다

- 1 색도 자리도 시간도 분위기도, 말해 주지 않으면 흔한 쪽으로 채워져.
- 2 그래서 같은 설명이어도 **매번 조금씩 다른 그림**이 나와.
- 3 자세한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달라 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몇 개가 빠져.

1초에 그림 서른 장

1 영상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 멈춘 그림을 빠르게 이어 붙인 거야.

2 1초에 보통 스물네 장에서 서른 장쯤 들어가.

3 그래서 영상 만들기는 어제 본 그림 만들기의 수십 배로 무거워.

양보다 어려운 건 이어집

- 1 가로 1920, 세로 1080짜리 그림 한 장에 점이 약 207만 개야.
- 2 1초면 점이 **약 6,220만 개**로 불어나고.
- 3 컵이 2번장에서 왼쪽, 3번장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순식간에 이상한 영상이 돼.

소리를 잘게 쪼개서 듣는다

1 AI는 네 말을 통째로 알아듣는 게 아니야.

2 소리를 1초에 1만 6천 번 숫자로 적고, 25밀리초짜리 창으로 훑어 가.

3 조각 하나하나를 그냥 높낮이 무늬야.

앞뒤를 봐야 글자가 정해진다

1 '안'과 '않'은 소리만 들으면 거의 같아.

2 그래서 AI는 옆 글자와 어울리는지까지 보고 골라.

3 처음 듣는 이름이 자주 틀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.

목록을 주느냐, 한 덩어리를 주느냐

- 1 검색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갈 곳 목록을 줘.
- 2 AI는 이미 읽어 둔 걸로 **한 덩어리 문장**을 만들어 주지.
- 3 읽을 게 하나뿐이라 빠르는데,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안 적혀 있어.

갈림길은 출처가 보이느냐

- 1 여러 자료가 한 덩어리로 녹아 섞이면 틀린 줄만 골라내기 어려워.
- 2 AI가 링크를 달아 줘도 그 링크가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지는 눌러 봐야 알아.
- 3 2023년 조사에서 문장의 51.5%만 링크로 완전히 뒷받침됐어.

빨라지는 건 앞부분

1 AI와 함께 조사하면 시작이 빨라져.

2 검색어와 목차 후보를 금방 뽑아 주니까 **찾고 추리는 앞부분**이 빨라지는 거야.

3 숫자·연도·사람 이름·인용문은 내가 원문을 눌러 확인해야 해.

줄이다 섞이는 말

- 1 긴 글을 줄이는 과정에서 원문에 없던 말이 섞이기도 해.
- 2 원문에서 못 찾은 문장은 **빼는 게** 맞아.
- 3 2023년 미국에서는 변호사가 AI가 만들어 낸 가짜 판례를 법원에 냈다가 벌금을 물었어.

답을 받을까, 풀이를 받을까

1 같은 문제를 물어도 답을 달라고 하느냐 풀이를 달라고 하느냐로 돌아오는 게 달라져.

2 고르는 기준은 하나야 — **이걸 나중에 나 혼자 해야 하나.**

3 혼자 해야 할 일이면 풀이를, 맞았는지만 보면 되는 일이면 답을 받아.

단계를 밟게 하면 AI도 더 잘 푼다

1 '단계별로 설명해 줘' 한마디를 붙였더니 수학 문제 정답률이 크게 올랐다는 연구가 2022년에 나왔어.

2 같은 유형을 세 번 틀렸다면 **중간 어딘가가 비어 있다**는 신호야.

3 풀이를 읽은 것과 내가 풀 수 있는 건 다르니까, 보지 않고 다시 풀어 봐.

모으기 → 표 → 고치기 → 그래프

1 흩어진 자료를 바로 그래프로 그리면 안 돼.

2 표에는 규칙이 있어 — **한 줄에 한 건, 한 칸에 한 값.**

3 이렇게 줄을 세워 놓으면 사람도 AI도 바로 계산할 수 있어.

AI가 잘하는 칸과 내가 봐야 하는 칸

1 줄 세우고 계산하는 건 AI가 빨라.

2 단위가 섞였는지, 빈칸이 있는지, 이상한 값이 끼었는지는 자료를 모은 내가 제일 잘 알아.

3 고치기 전에 그린 그래프는 예쁘지만 틀린 그림이야.

발표는 조각으로 쪼개진다

1 발표 준비는 한 덩어리가 아니야.

2 주제 좁히기·자료 모으기·슬라이드 만들기·연습 같은 **조각으로 쪼개져.**

3 AI가 맡기 좋은 조각은 밑그림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야.

내 이름이 붙는 조각

1 무엇을 말할지 정하기, 숫자 확인, 연습, 질문에 답하기는 내 몫이야.

2 문장은 근사한데 **한 줄만 물어도 무너지는** 발표가 제일 위험해.

3 틀린 숫자도 내 이름으로 남으니까.

뻘한 답과 엉뚱한 답을 가르는 손잡이

1 AI는 다음 낱말을 확률로 골라.

2 확률 높은 것만 집으면 뻘해지고, 낮은 것까지 집으면 엉뚱해져.

3 이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손잡이가 진짜로 있고, 이름이 '온도'야.

넓게 뽑아 놓고 내가 고른다

- 1 손잡이를 올리면 쓸 만한 아이디어와 버릴 아이디어가 같이 늘어나.
- 2 번역과 요약은 낮추고, **아이디어 회의는 올리는** 게 맞아.
- 3 화면에 손잡이가 안 보여도 '더 엉뚱하게 스무 개 더'라고 말하면 비슷한 효과가 나.

목표 → 쪼개기 → 순서 → 점검

- 1 막막할 때는 AI에게 답을 묻지 말고 일을 쪼개 달라고 해.
- 2 계획은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**뭘 먼저 하느냐**를 정하는 일이거든.
- 3 목표·쪼개기·순서·점검, 이 네 칸만 채우면 계획이 돼.

조건을 주면 쓸 수 있는 계획이 나온다

- 1 기간·분량·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알려 줘.
- 2 조건이 없으면 AI는 아무 계획이나 그럴듯하게 만들어.
- 3 점검 칸은 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되돌릴 시간을 버는 칸이야.

되돌릴 수 있으면 맡긴다

1 목표만 주면 스스로 검색하고, 파일 열고, 실패하면 다시 해 보는 AI를 에이전트라고 불러.

2 맡겨도 되는 일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야 — **틀렸을 때 되돌릴 수 있느냐.**

3 파일 이름은 되돌리고, 보낸 돈과 낸 보고서는 못 되돌려.

사람이 보는 칸을 남긴다

1 사람이 쉽게 하는 일을 에이전트는 자주 놓쳐.

2 2023년 첫 평가에서 사람은 92%를 끝낸 심부름 문제를 에이전트는 **15%만** 끝냈어.

3 진짜 웹사이트 과제에서는 사람 78.2%에 에이전트 14.4%였지.

**늘어놓고 줄이는 일은 AI가,
고르고 확인하는 일은 내가.**



4부에서는 조심할 것을 본다.